

정신과의사들 주목받는 인기저자로 부상

「배짱으로 삼시다」의 이시형씨 필두로 독자들 관심 최근들어 부쩍 높아져

사회 병리현상을 진단한 정신과 의사들의 저작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은 주로 사회생활을 원만히 해 나가려는 현대인들의 고민과 가중된 스트레스의 해소법, 그리고 최근들어 더욱 문제시되고 있는 여성문제, 성 문제 등을 정신과 의사들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있다.

정신과 의사들이 쓴 책 중에서 선두에 서 있는 책이라면 단연 「배짱으로 삼시다」(이시형 지음, 집현전)가 꼽힌다. 고려병원 신경정신과 의사인 저자가 쓴 이 책은, 평균적 한국인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소심증과 열등감, 체면의식과 조급증의 근원을 간파한 내용으로 자기 기분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자신있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득한다. 상사의 비위를 맞춰야 할 때나, 맘에 들지 않는 물건을 권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82년도 출간 당시 예상치 못했던 베스트 셀러가 되는 등 현재까지 60만 부라는 판매부수를 기록하고 있다. 「배짱으로 삼시다」의 저자는 이 책 뿐만 아니라 「자신있게 사는 여성」「크게 멀리 보고 키워야 됩니다」「불확실성시대의 결단」「지혜롭게 사는 여성」「신나게 삼시다」「대인공포증의 치료」「여성 20대 나를 바꾼다」(집현전) 등 현재까지 9권의 책을 집필해 '이시형 패키지북스'를 만들었다.

정신과 의사들의 저작에는 여성문제를 부각시킨 책이 많다. 앞에서 언급한 「자신있게 사는 여성」「지혜롭게 사는 여성」「여성 20대

나를 바꾼다」 말고도 「여자도 모르는 여자의 콤플렉스」(주문희 지음, 청심) 「여자의 허물벗기」(이나미 지음, 문학사상사)가 눈에 띈다.

「여성 20대 나를 바꾼다」는 20대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는 것이라 전반적인 여성문제를 다뤘다고 볼 수 없으나 「지혜롭게 사는 여성」「자신있게 사는 여성」은 가정에서의 여성문제와 사회에서의 여성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여성문제를 좀더 현실화시켜서 집중적으로 다룬 책으로는 「여자도 모르는 여자의 콤플렉스」와 「여자의 허물벗기」가 속한다.

「여자도 모르는 여자의 콤플렉스」는 주문희씨(주신경정신과)가 환자를 대하면서 느낀 여러가지 여성 콤플렉스를 여성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서술한 책이다. 연애 상대의 선택이나 결혼, 육아, 직장생활이나 대인관계와 같은 상황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해지기 보다 무의식속의 콤플렉스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진단이다. 즉 "현재의 모든 상황은 유년기의 부모와의 관계, 가족관계, 출생서열 등과 같은 과거의 관계에서 나오는 파생물"임을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여자의 허물벗기」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직장에서의 성 차별, 남성위주의 성문화 등 사회적 억압이 여성의 의식과 행동을 어떻게 위축시키는가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나미씨(이나미신경정신과)는 환자들의 상담을 통해서 「강간 피해자가 받는 또다른

고통'이나 '의치증과 의부증' 등도 다뤄 여성 문제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저서는 성차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저자들은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뒤뜰린 관계로 보는 것에 반대한다. 「남성은 여성의 적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문희씨(주신경정신과)는 여성정신분석이라는 주제 또한 "모든 여성문제들이 남성에 대한 투쟁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면 오히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인간으로서 공존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한다.

정신분석학에 기초한 이론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이 있다. 주로 환자들을 대하면서 치료과정과 치료가 끝난 후의 변화를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는 「나는 다만 하고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뿐이다」(김정일 지음, 새길) 「때론 나도 미치고 싶다」(이나미 지음,

문학사상사) 「대인공포증」(이시형 지음, 집현전)이 그것.

「대인공포증」은 '대인공포증 집단치료'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들이 나눈 대화를 게재하고 치료기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해설함으로써 읽는 것만으로 '자기 진단'이 가능하다.

또다른 책 「나는 다만 하고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뿐이다」는 정신과 의사의 눈에 비친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다루고 있다. 환자들의 상담사례와 더불어 현대인들의 성모럴과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저자 자신의 이 야기도 간간이 섞어 놓은 이 책은 최근 베스트 셀러 집계에 심심찮게 오르고 있다. 또한 싸이코 드라마를 주로 하는 극단에서 연극으로 공연되기도 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때론 나도 미치고 싶다」도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 치료과정에서 느끼는 심정과 변화된 환자의 모습을 서술한다. — 배은희 기자



편집실무와 전자출판
크라운판/김두식 편저/12,000원

전자출판과 멀티미디어의 이해와 활용
크라운판/이만재 외 역음/8,000원

전자출판론 I
크라운판/김두식 편저/10,000원

편집디자인 실무분석
크라운판/김두식 편저/14,000원

책을 만드는 책들
◇《도서출판 타래》의 출판 편집 도서◇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309-3 상수빌딩 201호(우 121-160) / 전화 325-1945 · 5439 / 팩시 325-5439

우리글 바로잡기 실무 I
크라운판/편집부 편/8,000원/끝나옵니다

출판기획 편집실무 강의
크라운판/김두식 편저/10,000원

우리글 바로잡기 실무 II
크라운판/편집부 편/8,000원/끝나옵니다

교회출판물 기획 편집실무
크라운판/김경일 편저/10,000원

출판 사회학
크라운판/이정춘 편저/12,000원

신문 잡지 단행본 레이아웃 분석
크라운판/김두식 편역/10,000원

신문 취재 편집 레이아웃 실무
크라운판/김두식 편저/10,000원

편집핸드북 귀염둥이
4×6판/편집부 편/2,000원

한국출판문화 변천사
크라운판/부길만 백운관 공저/10,000원